

'청년, 오월을 이어적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총장로 5가에서 'RE:BOOT' 전시가 펼쳐졌다. 손대현 작가의 작품 'RE:PLAY'(왼쪽)와 'LOOP'.



1980년, 그리고 2025년

오직 청년들의 시선으로 '오월'을 잇다

기억이 '살아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현재와 만날 때다. 4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오월의 광주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청년들이 그 물음에 예술로 답한다. 총성과 피의 기록 대신, 웹툰의 말풍선과 낯익은 멜로디, 무대 위 장면들로 오월을 다시 그려낸다.

'청년, 오월을 이어 적다'는 청년들의 시선으로 오월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45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의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웹툰작가 최지민, 전시작가 손대현, 작곡가 박준현, 극단 밝은밤 등은 지난달부터 5·18을 주제로 한 전시·웹툰·음악·공연 등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양한 장르가 유기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청년 창작자들이 직접 이야기 흐름을 기획하고 협업하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기억'이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많은 오월 콘텐츠가 있는

데, 왜 청년들의 시선으로 다시 써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오월 콘텐츠에 관심을 잃어가는 이유로 '공감하기 어려운 딱딱한 서사', '일회성 행사 위주 구성', '낮은 정보 접근성' 등을 꼽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다 공감하기 쉬운 방식을 택했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것은 웹툰. 호남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1학년 최지민 작가는 2025년을 살던 고등학생 주인공이 1980년의 청년으로 '빙의'돼 벌어지는 이야기로 현재 연재 중이다. 과거로 간 주인공은 현재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또래 여자 아이에게 사랑에 빠져버린다. 마치 로맨티 코미디 같은 설정이다.

최 작가는 "진지하고 비장한 오월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방식이 지금 세대에게는 거리를 줄 수 있다고 봤다"며 "사랑을 하는 인물들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사나 시민군이 되는

'청년, 오월을 이어적다' 주제 5·18행사위, 웹툰·음악·전시·공연 웹툰 이어 'RE:BOOT' 전시 진행 8월 '극단 밝은밤' 무대까지 풍성

과정을 통해, 그 시절 청년들이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웹툰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낸 것은 박준현 작곡가다. "가득 좋아해. 넘쳐버렸어. 주위담지 못해 진심을 전할게. 봄날의 끝, 꽃이 번지기 전에 너와 걸을래." 평범한 10대 소년의 고백처럼 들리는 이 노랫말은 봄날의 끝자락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이들의 마음을 환기한다.

전시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지난 11일 총장로 5가에서 개막한 전시 'RE:BOOT'는 지역 연극계

에서 활동해온 손대현 작가가 연출했다. 소극장을 연상케 하는 작은 전시 공간은 게임 테트리스나 마인크래프트를 닮은 구조물로 채워졌다. 층층이 쌓인 합판과 젠가 구조물이 시선을 끌고, 관객은 'wave→loop→replay'의 동선을 따라가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조립'된 오월의 감각을 마주하게 된다.

손 작가는 "젠가가 쌓이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거치듯 5·18에 대한 기억 역시 하나의 단일한 구조가 아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마지막 장르는 공연이다. 오는 8월 예정된 무대에서는 웹툰 스토리를 극본으로, 음악을 BGM으로 활용한다. 전시 요소를 무대장치로 전이하는 과정을 통해 네 개의 장르가 하나의 서사로 결합된다. 연출과 연기는 청년 극단 '극단 밝은밤'이 맡는다.

배우 이태영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대단한 영

웅으로 그리기보다 옆 반에 있는 평범한 친구처럼 표현하고 싶었다"며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 시절 청년들의 고뇌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 오월극을 한 적은 있지만, 당시를 직접 겪은 선배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데 집중했다. 이번에는 청년들만으로 구성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에디터이자 극단 밝은밤 대표 최혜민 씨는 "12·3 계엄 이후 오월정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를 직접 겪은 기성세대는 시간의 흐름과 맞물려 활동이 다소 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자리를 이어받은 청년들이 오월정신을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게 계승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금강산·울산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천하제일 '금강산' 독특한 경관 '반구천 암각화' 선사문화 결합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며 한민족의 명산으로 꼽혀온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 (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5월 금강산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강산이 독특한 지형과 경관, 불교의 역사와 전통, 순례 등이 얽혀 있는 문화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봤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여겨져 왔다.

높이 1천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화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있다.

위치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뉘며 다양한 식물 종이 서식해 생태·자연 자원의 보고(寶庫)로도 꼽힌다.

금강산은 예부터 사대부와 문인들이 꼭 가고 싶어 한 여행지였다.



'울주 반구대 암각화' /연합뉴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금강산에 대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한번은 올라야 한다는 민간신앙이 있을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고 설명한다.

여러 문학 작품과 예술품에는 금강산의 숨결이 곳곳에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국보 '정선 필 금강전도'를 들 수 있다.

이에 앞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숨결이 깃든 바위그림인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국보 '정선 필 금강전도' <국가유산청 제공>

그림, 즉 바위그림을 뜻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유산으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처음으로 등재한 이후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됐다.

세계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유산을 일컫는다. /연합뉴스



우봉이매방 선생 서거 10주년을 맞아 추모공연이 오는 2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매방 선생의 공연 모습.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제공>

전통춤의 거목, 고향에서 다시 깨어나다

'우봉 이매방 10주기 추모공연' 2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춤은 무겁게 취야 해"

한국 전통춤의 대가, 우봉 이매방(1927~2015) 선생의 예술혼이 10주기를 맞아 고향 목포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오는 20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서거 우봉 이매방 10주기 추모공연: 목포'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선생의 대표작을 총망라한 대규모 한정 무대다.

이매방 선생은 목포에서 태어나 승무와 살풀이춤 등 한국무용의 원형을 지켜낸 전통춤의 거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이자 호남춤의 계보를 이은 예인이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7년 2주기 추모공연 이후 8년 만에 고향에서 선생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다. 과거를 기리는 자리를 넘어 전통예술의 뿌리를 미래로 잇는

상징적 무대가 될 예정이다.

공연은 이매방 선생의 부인이자 50년 넘게 이매방류 춤을 전승해온 소정 김명자(김정수) 선생이 주축이 되어 이끈다. 이매방 선생의 제자들과 전국 각지 이수자 50여 명이 참여해, 승무·살풀이·임춘·검무·장검무 등 이매방류 춤의 정수를 무대 위에 펼친다. 특히 이매방류 군무가 가지는 장엄한 울림과 선생의 예술 철학이 깃든 춤사위는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이혁렬 대표는 "이번 공연은 이매방류 춤의 본질을 되새기고, 예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선생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며 "특히 목포에 다시 한 번 '춤의 성지'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